



광주의 대표 메세나 고 임춘평 박사의 소장품전이 열린 19일 무등현대미술관을 찾은 200여명의 관람객들이 고인의 나눔 정신을 기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사랑 나눔의 정신 되새기자

‘故 임춘평 소장전’에 화가·문인 등 200여명 참석

“아깝잖아 나눠줬던 임춘평 박사의 메세나 정신이 스며있는 소장품을 감상하며 이웃 사랑을 배웁니다.”

19일 고 임춘평(1937~1990년·전 임춘평회파와 원장) 박사가 생전 가난한 화가들을 돕기 위해 사들였던 소장품을 선보이는 ‘문화사랑나눔 임춘평 소장전’이 개막한 무등현대미술관에는 ‘나눔 바이러스’가 가득했다. <광주일보 17일자 1·3면 참고>

이날 개막식에 모인 김종일·우재길·문병란·국중호씨 등 생전 그와 교류했던 화가와 문인, 후배 의사 등 200여명은 임 박사의 나눔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임 박사는 가난한 화가를 만나면 그림을 사주고, 불우한 학생들에게는 매 학기마다 잊지않고 장학금을 건네줬던 광주의 대표적인 메세나였다.

서양화가 김종일씨는 “돈이 없으면 빛을 내서라도 작품을 사줬고, 가난한 환자는 돈 한 톨 받지 않고 치료해줬던 선생의 조건없는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고 말했다.

특히 임 박사의 후원을 받아 이제는 여전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한 고학생들이 이날 전시장을 찾아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했다. 임 박사는 생전 수 백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해줬고 이날 전시에는 그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마친 광주 은혜학교 김선신 교사 등이 참석해 임 박사의 나눔 정신을 기렸다.

김 교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는데, 임 박사께서 10여년 간 장학금을 보내줬다”면서 “물질적인 도움도 컸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용기를 줬던 ‘정신적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지체부자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고인에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김 교사는 “여유가 되면 꼭 박사님처럼 나눔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또 참석자들은 생전 낙도 지역을 돌며 의료 봉사를 하고, 화가들의 전시회를 찾던 임 박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며 나눔이 주는 큰 감동을 나눴다.

한편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는 진양욱·양수아·박행보·최재창·손동·이강하·조규일·김종일·이창주·정병기·우재길·황영삼씨 등의 작품 110여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223-66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빅3 줄줄이 무너져 지역경제 휘청

회고 2010

6 건설업계 줄도산

2010년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는 잔인했다. 새해 벽두 지역 최대 건설사인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니 2위 남양건설, 3위 금광기업이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처럼 지역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휘청이자 협력업체들도 위기에 빠졌고, 끝내 지역 전문건설 1위 업체인 다우건설이 부도를 맞았다.

앞선 데 달린 격으로 국가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집중되면서 도로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물량마저 사라져 지역 건설업계의 고통은 더했다. 공사물량 급감은 실적 또는 등록기준 미달로 이어졌고, 지역 건설업계는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삼중고에 시달렸다.

◇지역 건설사 ‘빅3’ 휘청=새해 벽두인 1월6일 지역 건설사 중 시

광주 건설업체 4년새 25% 문 닫아 4대강에 예산집중...내년이 더 암울

공능력 1위이자 전국 12위인 금호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절차)에 들어간데 이어, 4월2일 2위(전국 33위)인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15번째 철강유통 부문 국내 1위인 새한철강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고, 보름도 되지 않은 같은 달 28일 지역 3위(전국 46위)인 금광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역 건설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광주·전남 경제의 한 축인 건설업계 ‘빅3’가 불과 넉달 사이에 줄줄이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중소기업업체와 협력업체의 연쇄 위기로 이어졌다. 2년 연속 지역 전문건설업계 1위를 차지한 다우건설이 8월 24일 끝내 부도처리 됐다.

◇지역 건설사 ‘빅3’ 휘청=새해 벽두인 1월6일 지역 건설사 중 시

계 확인된다.

지난 2006년 말 236곳에 달하던 광주지역 종합건설업체는 2007년 211곳, 2008·2009년 187곳, 올해 170곳으로 66개 업체가 줄었다. 4년 사이에 광주 건설업체 4곳 중 1곳(27.9%)이 문을 닫은 것으로, 전국 평균(7.4%)의 4배에 육박했다.

영산강 사업 등 대형 공공물량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전남 건설업체 수주 실적은 모두 8조6815억원으로 전년 9조3083억원보다 6268억원(6.7%)이나 감소했다.

◇전남 건설업체 4곳 중 1곳 행정처분=올들어 11월 말까지 전남 도로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270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986개)의 27.4%로, 지난해 한해동안 231개 업체를 크게 웃돈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공사 실적이 기준에 미달해 제재를 받았다.

사상 최대 행정처분은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가 주요인이다. 특히 관공사의 비중이 큰 전남지역의 경우 4대강 사업에 정부 예산이 쏠리면서 공사 물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 지역 대표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압박이 가중됐다.

◇내년엔 더 어렵다=문제는 내년 지역 건설업계의 전망이 올해보다 더욱 어둡다는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도로건설 등 SOC 신규 사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관공사 비중이 55%로 민간 물량보다 의존도가 높는데 올해 관공사물량이 3분의1 가량 줄어들어 힘겨웠다”면서 “내년에도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 물량이 거의 사라져 지역 건설업계는 더욱 추위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해님이·해맞이 행사 풍성

소망 띄우기·불꽃쇼 등...곳곳 손님맞이 준비 분주

2010년이 저물어간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설거하려는 관광객들을 위해 전남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해님이, 해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묵은 해를 훌훌 털어내고 특별한 의미를 담아 새해 소망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

완도군은 다도해 일출공원에서 새해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성대하게 연다.

완도읍 동방산에 조성된 다도해 일출공원은 완도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섬과 섬 사이에서 떠오르는 일출 장면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일출공원 내 완도타워 광장에서는 일출 기원제와 북소리 공연으로 새벽을 밝히고 새해가 떠오르고 동시에 소원지를 부착한 풍선과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완도군은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76m의 완도타워

전망대에서 일출을 맞이하려는 관광객을 150명에 대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31일 밤 완도타워에서 완도항을 중심으로 화려한 레이저 쇼를 진행하는 등 해님이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해남 땅끝마을에서도 31일부터 1일까지 송년 불꽃놀이, 국토순례단 발대식, 울돌목 거북배 선상 해맞이 등 다양한 해님이·해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장흥에서도 정남진 전망대와 여다지 해맞이 전망대에서 1일 새벽 6시30분부터 짚 태우기, 달집태우기, 대북공연, 소망풍선 날리기 등의 해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지난해 화마로 대웅전 등이 불에 타던 여수 향일암에서도 ‘새 빛, 새 희망, 천 년의 해오름’을 주제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운 융성 등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송년 갈놀이 퍼레이드를 비롯

해 신년 축하 불꽃쇼, 탐방객 대동 한마당, 소원성취 기원제 및 신년 음악회 등이 열리고 국토대장정 발대식도 개최된다.

전국 4대 관음기도처 중의 하나인 향일암은 금오산 기암절벽 사이의 울창한 동백나무와 남해의 수평선에서 솟아오른 일출 광경이 전하 일품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일출 명소다.

여수에서는 향일암 외에도 만성리해수욕장·오동도·자산공원·구봉산·봉화산·호암산·무술목 등에서 분산 일출제를 개최한다.

영광에서는 백수 해안도로와 불갑산에서 새해 1월1일 주민 무사 기원제 등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곡성에서도 새해 첫날 새벽 6시30분 곡성을 화정리 삼인동 옥류봉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국 고품질 쌀 베스트 12

전남 브랜드 쌀 5개 뽑혀

올해 전국 최고의 고품질 브랜드 쌀 12개 가운데 전남 쌀이 5개나 선정됐다. 해남 육전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은 8년 연속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베스트 12’에 뽑히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2010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베스트 12’ 평가에서 수 상했다고 밝혔다. 무안 ‘황토랑쌀’, 영암 ‘달마지쌀 골드’,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 해남 ‘한눈에 반한쌀’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해남 ‘한눈에 반한쌀’은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남산 브랜드 쌀은 평가 첫해인 2003년에 4개가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3개 ▲2005년 4개 ▲2006년 5개 ▲2007년 5개 ▲2008년 4개 ▲2009년 4개 등 매년 ‘베스트 12’ 중 3~5개를 차지할 정도로 명품 쌀의 입지를 굳혀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번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해남 ‘한눈에 반한 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베스트 12’에 뽑히는 진 기록을 달성했다. 또 강진 ‘프리미엄 호평’, 영암 ‘달마지쌀 골드’는 4차례,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한편, ‘올해 고품질 브랜드 쌀 베스트 12’에는 군산 제회 미국종합처리장에서 생산한 ‘칠새도래지쌀’이 최우수 상을 받았고 ‘상상에찬골드’(공덕농협), ‘큰 들의 꿈’(대야농협), ‘순수미 골드 라이스’(명천 RPC), ‘옥토진미 골드’(회현농협) 등이 고품질 쌀에 이름을 올렸다.

Life라는 단어에 if가 들어가 있듯 인생은 알 수 없는 만약으로 가득하죠

만약, 인생에 위기가 닥친다면?
만약,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는다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계 7천만 고객의 선택 142년의 노하우
MetLife 금융그룹이 있으니까요.

만약을 위한 든든한 약속

MetLife®

메 트 라이 프 생 명





©2010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2010 Peanuts
www.metlife.co.kr 고객센터: 1588-9600